·중·1, 독대 전에고려기는 사람들이 아물다운 훈련된 싶는

안녕하세요. 20살이 된 김윤이 입니다. 꿈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않았던 인내가 부터 그곳에서는 허기경인나를 기억하겠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울지아세요.



CM SIRRICH

धमन्म हैं।प्रदा हला कर

"하늘에서도 행복해~" 전국에서 보낸 위로와 추억

광주시민상주모임, 세월호 6주기 앞두고 '기억의 편지' 전시회

희생자 특징 담은 편지 보내 시민들이 글과 그림 덧붙여 그리움 담긴 520장 모아 전시 광주 YMCA에서 18일까지

"형,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해." 세월호참 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 이태민군 에게 보내는 편지지에 쓰인 글은 얼룩져 있었다.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하면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듯 했다.

호텔 요리사가 꿈이라던, 단원고 2학년 6반 이태민 군의 주방장 복장을 한 이미지 사진에도 개성 넘치는 보라색을 칠해놓았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둔 13일, 광주시 동구 YMCA 백제실은 좀처럼 무뎌지지 않는 슬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 기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4월이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무언 가라도 하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이 마련한 시민참여 프로젝트. '기억의 편지' 전시회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는 글과 편지 520장을 뽑아 전시에

상주모임이 4월을 앞두고 직접 희생자 들의 특징을 담은 편지지를 제작해 배송하 고 시민들이 편지지 위에 위로의 글을 쓰 거나 그림을 그려 해당 희생자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는 형태로, 상주모임에 발송 한 것을 모아 선을 보인 편지들이다.

그리움과 사랑을 전하는 시를 담아 보낸 편지, 희생자의 얼굴을 직접 그린 편지 등 편지 한 장 한 장마다 희생자들의 가족, 친 구, 엄마, 아빠인 듯한 그리움과 추억, 애 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 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어린아 이·학생·성인 등이 참가자들도 다양했다.

상주모임측 관계자는 전시회를 준비하 는 과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기억의 편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며 "세월호를 모르는 유치원생 자녀들도 참여했는데, 세월호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 다"는 뜻을 전해온 참가자도 있었다고 했

처음엔 참가자 수를 304명으로 제한하 려고 했다가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 의 메시지도 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는 게 상주모임측 설명이다.

4월이면 마음 한 구석을 채우는 먹먹함 과 그리움으로 전시회를 찾는 발길도 잇따

전남대 학생 박지은(여·22)씨는 "세월 호 추모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며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힌 편지지를 읽다 보니 울컥하다"고 말

상주모임측은 전시회장에 희생자들의 사진과 이름으로 채워진 추모 공간도 마련



13일 광주시 동구 YMCA 백제실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참사 6주기 시민참여프로젝트 '기억의 편지304' 전시회에서 한 시민이 전 시된 편지를 살펴보고 있다. '잊지 않겠다던 약속, 4.16'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했다. 전시회를 둘러본 관람객들은 추모공 간에서 노란색 리본 모양의 철 구조물에 노란색 리본을 묶는 방법으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했다.

세월호 광주상주시민모임 김옥진씨는 "코로나19에 따라 추모와 기억의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고민하다 '기억의 편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며 "편지 지 속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써가다보 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됐는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

엇을 해야 하는 지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리고 전시회 가 종료되면 편지들은 세월호 가족협의회 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날 잊지 말자" 세월호 6주기 온라인 기억관에도 기억과 애도 글 잇따라

1500여명 이상 방문 추모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온라인상 에 개설된 '세월호 참사 6주기 온라인 기 억관' (https://416foundation.org/온 라인-기억-공간/)도 그날을 잊지 말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메시 지가 담겨있다.

재단법인 4·16 재단이 꾸민 '2014.04.16 기억하다 기록하다'라는 제 목의 온라인 기억관〈사진〉은 메인 화면 에 세월호 참사를 의미하는 노락색 리본

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기원 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바로 밑에는 희생자들이 전하는 듯한 "잊지 않아 주셔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날 의 기억은 생생하고 너무나 잔인했던 날 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쁜 날, 세상 에서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6년이 지났는데 달리지는 게 너무 없다는 사실 이…"라는 글귀로 방문객들을 울컥하게

방문객들이 추모의 글을 남기는 코너 에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벌써 1533명이 애도의 글을 남겼다.

나선씨라고 쓴 누리꾼은 '지금도 생각 만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상.규.명 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라는 추모글을 남겼다. 김이 슬씨라는 누리꾼은 '잊지 않겠습니다, 끝 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메세지를 전 하는 등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기억과 애도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주빈, 성착취물 제작 등 14개 혐의 기소…'박사방' 38개 운영

"박사방은 유기적 결합체" 범죄단체조직 여부 계속 수사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 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24)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조씨가 이른바 '박사방' 을 최소 38개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 찰은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 할지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 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 죄조사부장)는이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앞 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 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 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 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 명, 성인은 17명이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 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

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 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 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올해 1월 지상파 시사교양 프로 그램의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으려고, 피 해자에게 자살 예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씨 등 2명 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가 적용됐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 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 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게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

(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유 사성행위 ▲ " 강간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처벌범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 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개인정보보호법 위 반 ▲ 무고 ▲ 사기 ▲ 사기미수 등 14개

강씨는 조씨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가 하면 조씨에게 400만원을 주 며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는다. 검 찰은 조씨의 경우 애초부터 살인을 저지 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 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재판 27일 진행…전씨 출석 여부 관심 집중

법원이 오는 27일 전두환(89)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키로 하면서 전 씨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 사대법정에서 전씨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 을 연다.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지 1 년 만이다.

법원은 앞서 열린 재판준비기일에서 판

사 경질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등으로 피고 인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 상태다. 전씨는 이같은 일 정에 따라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 문을 위해 재판 출석 의무가 생겼다.

한편, 법원은 전씨 재판을 방청하려는 일반 시민들에게 33석을 제공키고 하고 오 는 24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 차를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사측 불성실 교섭" 손배소

담양에 위치한 호남문화재연구원 소속 노조원들이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노조와 연구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호남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노조 는 최근 재단법인 호남문화재연구원을 상 대로 6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양 호남문화재연구원 노조 제기했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의 조사·발굴·관리 및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매장문화재 전 문 조사기관이다.

> 노조측은 지노위의 3차례 조정 절차에도 중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교섭이 결렬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호남문화재연구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연구원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자와의 실 무합의도 이사장이 파기해 소송을 제기했 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구두에 구멍 낸 뒤 휴대전화 넣어 몰카 촬영한 20대 휴학생



○…구두 속에 휴대전화 를 집어넣고 구멍을 낸 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

(26)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옷가게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종업원이

눈치를 채자 그대로 줄행랑.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원래 신발 크기보다 두 치수 가량 크게 구입한 구두 코 부분을 구멍내 휴대전화를 넣고 ○···1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 촬영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 난 2015년에도 동종 전력으로 입건된 바 있어 여죄를 추궁.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둘 <경매 1	를건 계>	의 표시 및 매각조건 *(GR코	 !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	□ 중. 보속됩니다. □ 중.
사건번호	물건 번호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74592 [단독주	1	서구 운천로32번길7, 503동 11층 1105호 [금호동,금호시영일반분양아파트] 59,82㎡ 다가구주택	아파트	124,000,000 124,000,000	
2019타경 76727	1	의 기구 가 기가 기	단독주택	142,027,740 142,027,74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연립주	택/	다세대/빌라]	141		
2019타경 18691	1	서구 경열로117, 2층 203호 29.5㎡	다세대	92,000,000 92,000,000	
	2	서구 경열로117, 3층 303호 29.5㎡	다세대	94,000,000 94,000,000	
	3	서구 경열로117, 5층 503호 73.32㎡	다세대	235,000,000 235,000,000	
	4	서구 경열로117, 4층 404호 29.77㎡	다세대	95,000,000 95,000,000	
2020타경 573	1	광산구 사암로131번길35, 가동 2층 204호 22.4㎡	다세대	45,000,000 45,000,000	
	2	동소35, 가동 3층 303호 22.4㎡	다세대	45,000,000 45,000,000	
	3	동소35, 가동 4층 405호 22.4㎡	다세대	45,000,000 45,000,000	

사건번호 물건 최저매각가격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대지/임야/전답]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28 61686㎡[공유]임이 자김효정지분2분의1전부] 29,609,280 우선매수신고1회 17841 에한함.맹지 2019타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65-4 89㎡ 61.677.000 제시외건물매각제 61,677,000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9타경 나주시 그린로317-7, 5층 502호 [빛가람동 근린시설 544,000,000 18929 명작갤러리빌딩] 180.8906㎡ 544,000,000 [기타] 화순군 이양면 이양농공길 30 1동호 1632. 공장 2,427,841,500 광업재단저당법제 '5㎡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별지 2019타경 기재와같음 제시외 기계기구공장및광업자 기계기구일련번호 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 9,21,24,27,31,33 18295 동소 30 2동호 1층213.25㎡ 2층200㎡ .41과일련번호7고 동소 30 3동호 1층299㎡ 지1층234㎡공장및 공장 15의일부각소재불 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별지기재와같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

매각결정기일 : 2020. 5. 6. [수] 16:00 매각장조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려던 20대 휴학생이 경찰서행.

. 매각 방법) 의확법적에 비치된 기일입합표에 사건번호, 입참자의 성명, 주소, 입참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입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참봉투에 넓어 입합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합[10판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제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합자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봉투의 투입이 관료되면 골바로 개칭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고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다. 3한 사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다. 4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마다 어기가 못 내습니다. 최고의 가격은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하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하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 매각대금을 남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동상 매각하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라면 제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각대금 및 지언이자, 비용을 남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수의사항
이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가 등록신청을 마친 일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영차보충금을 때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일반인들의 영함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득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형세서의 열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인질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집필표의 기재 및 입험보충음의 반충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집필표의 기재 및 입험보충음의 반충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합점교 하는 사람은 인강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소유전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실우에는 최고기배수신교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니다.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찰에서 제외됩니다. '에서 세와됩니다. 분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측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강원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급을 남부하기 전까지 재무자가 채무를 번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 니다.)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하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강역전성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금로, 관성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께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병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

2020. 4. 1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상익